

# ‘이지쿡’으로 명절 차례상 똑딱

(Easy Cook)

## 번거로운 ‘설 음식’ 걱정 끝

종가집 ‘데이즈 한우곰탕’ 떡국 맛 UP  
손이 많이 가는 만둣국엔 ‘개성왕만두’  
계란입힌 동그랑땡·명태전 구우면 땡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왔다. 하지만 매년 차례상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은 벌써부터 한숨이다. 명절 차례상에 오르는 전, 국, 나물, 만두 등 대부분의 음식들은 조리과정이 길고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 제약을 잘 활용하면 주부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이지쿡(Easy Cook) 제품을 살펴봤다.

### ●대상FNF 종가집 ‘데이즈 한우곰탕’

설날 대표 음식은 떡국이다. 하지만 정작 떡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국물. 진한 사골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에서부터 조리과정까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믿음직한 사골 육수 제품을 선택하면 고민은 사라진다. 대상FNF 종가집의 ‘데이즈 한우곰탕’은 양질의 100%



한우뼈를 12시간 이상 푹 고아내 사골육수 특유의 고소하고 진한 맛이 살아있다. 화학적 합성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정통 사골떡국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활용법도 다양하다. 만둣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다양한 국물요리의 육수로 사용하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다.

### ●동원F&B ‘개성왕만두’

떡 만둣국 한 그릇도 설날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이지만 만두만 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없다.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언감생심이다. 동원F&B ‘개성왕만두’는 커다랗고 얇은 만두피 안에 국내산 생 돼지고기와 6가지 야채를 활용해 속을 가득 채웠다. 만두 속이 비칠 정도로 얇고 투명한 가운데 전통 개성만두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오뚜기 ‘부드럽고 촉촉한 동그랑땡’

명절 대표 음식인 동그랑땡 역시 다진 고기, 으갠 두부, 갖은 채소 등 재료 준비에서부터 번거로운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쉽게 냉동식품을 선택하자니 차례



상에 올릴 만큼 맛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오투기에서 출시한 ‘부드럽고 촉촉한 동그랑땡’은 100% 국내산 돼지고기와 야채를 사용해 육즙이 풍부하며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닭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파, 양파, 당근, 부추, 마늘, 깻잎 등 국내산 야채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동그랑땡의 개당 중량이 28g으로 집에서 빚은 듯한 도톰한 외형으로 만들어져 설 차례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다.

### ●한성기업 ‘계란 옷 입은 통살 명태전’

명태전 역시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음식 중 하나다. 한성기업의 ‘계란 옷 입은 통살 명태전’은 명절에 부치는 전에 밀가루와 계란을 따로 입히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신속하게 요리할 수 있다. 도톰한 명태 통살에 계란 옷을 입힌 완제품으로 출시됐다. 상온에서 해동시켜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명태전을 완성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ow

# “호텔 가격 같다면, 교통 편리한 곳으로”

## ■익스피디아,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36% ‘교통편리성’ 꼽아  
40대는 ‘호텔 내부 부대시설’ 우선시

“같은 값이면 교통 편리한 호텔이 최고.”  
엔화 약세,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기 유류할증료 인하 등이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외여행객은 143만 677명으로 1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들의 1월 여행객 해외송출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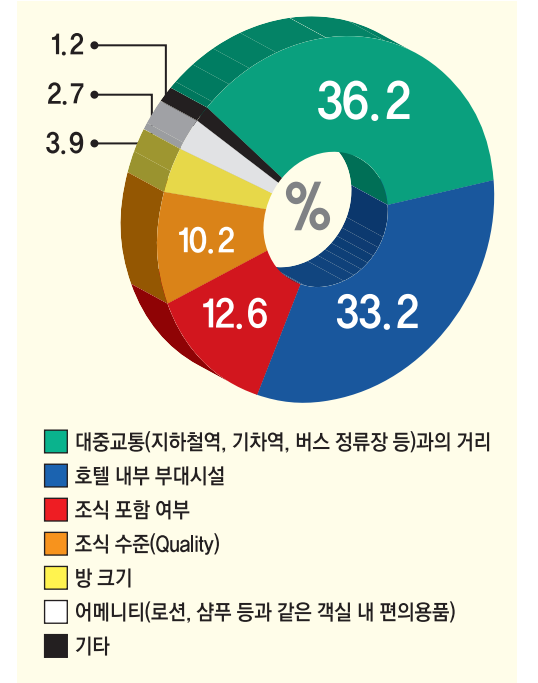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은 역시 항공편과 숙박이다. 항공편은 시간대와 가격 등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단순하지만, 숙박은 고려하는 점이 다양하다. 물론 호텔 역시 공통적으로 꼽는 최우선 기준은 1박당 숙박료. 하지만 비슷한 가격의 호텔이라면 선택의 기준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인원, 여행 목적지에 따라 달라진다.

호텔예약전문사이트 익스피디아는 최근 20~4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격이 같을 경우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국내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은 ‘대중교통과의 거리’였다. 전체 응답자의 36.2%가 호텔 선택에서 입지조건, 특히 교통편리성을 따졌다. 이어 호텔 내부 부대시설, 조식 포함 여부, 조식 수준, 방 크기, 어메니티(로션, 샴푸 등과 같은 객실 내 편의용품) 순으로 선택 기준을 응답했다.

### ●여자는 대중교통 편리성, 남자는 내부 부대시설을 중시

설문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여성의 39.6%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해외여행에서 호텔을 고르는 중요한 잣대로 꼽았다. 설문 응답에서 2위에 오른 호텔 내부 부대시설은 29.2%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남성은 반대로 ‘호텔 내부 부

## ●같은가격의 호텔 선택 기준은?



대시설’을 우선시(37.2%)했고, 대중교통 편리성은 그 다음이었다.

연령대별로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알뜰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20대와 30대 전반까지에서 교통여건을 따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30대 후반부터는 교통 편리성보다 ‘호텔 내부 부대시설’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특히 40대에서는 같은 값이면 ‘호텔 내부 부대시설’로 숙박시설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재미있는 점은 호텔 선택에서 조식 포함 여부와 수준을 따지겠다는 응답도 전 연령대에서 10% 안팎의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다국적 호텔 그룹 중 선호하는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하얏트(따코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 등), 힐튼(힐튼, 콘래드 등), 인터콘티넨탈(인터콘티넨탈, 크라운 플라자 등), 스타우드(웨라본, W등),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메리어트, 리츠칼튼 등), 베스트웨스턴 순으로 응답했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3일 FCA코리아가 출시 발표회를 통해 선보인 크라이슬러 200은 매력적인 실내와 디자인과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하는 9단 자동변속기 등 외관과 성능 모두 유럽 세단을 닮았다. 뉴스

## 확 바뀐 ‘크라이슬러 200’, 유럽 세단의 향기가...

9단 자동변속기 채택 부드러운 주행감각  
안전사양 강화...리미티드 모델 3180만원

FCA코리아는 3일 서울시 강남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크라이슬러 200 출시 발표회를 열었다.

매력적인 실내와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다소 딱딱한 미국식 디자인의 틀을 깨 쿠페 감각의 유선형 바디 라인은 언뜻 폭스바겐 CC를 닮았다. 그릴과 헤드램프를 통합한 전면 디자인은 마치 날개를 펼친 듯 유려하고 감각적이다. 또

HI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안개등, LED 테일램프를 적용해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동급 최초로 최첨단 전자식 로터리 E-시프트가 적용된 센터 콘솔 디자인은 기능성에 미적인 매력까지 더했다. 다이어를 돌려 기어를 조작하는 이 방식은 재규어에서 익숙하게 보던 기술이다. 주차 브레이크도 전자식이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감각 또한 유럽 세단을 닮았다. 동급 최초로 올-뉴 200에 적용된 9단 자동변속기는 기어비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동

력을 전달한다. 엔진도 달라졌다. 신형 2.4-liter 멀티에어@2 타이거샤크 I-4 엔진은 이전 엔진에 비해 출력은 6%, 토크는 19%가 향상됐다. 최고출력은 187마력, 최대토크는 24.2kg·m. 연비는 다소 아쉽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10.9km/L(고속도로 기준 15.1km/l)이다.

안전 사양은 대폭 강화됐다. 스태프&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플러스 시스템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 시스템,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등 60여 가지의 안전 기술(200C 모델)이 적용됐다. 가격도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 판매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올-뉴 200 리미티드 모델은 3180만원, 올-뉴 200C 모델은 378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 한국, 10년 연속 자동차생산 세계 5위

한국이 10년 연속 세계 자동차생산 5위 자리를 유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생산 자료(해외생산은 현지국가에 포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자동차생산은 452만대로 세계 자동차생산비중의 5.0%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엔저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차출시 등으로 인한 내수확대로 생

산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3% 증가한 2372만대(세계 생산비중 26.3%)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경기 회복과 실업률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저유가로 인한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1165만대로 2006년 이후 최대 생산을 달성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 전 선수요

와 경제관매 확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977만대로 3위, 독일은 내수회복과 수출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93만대로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인도가 6위, 멕시코 7위, 브라질이 8위, 스페인이 9위, 캐나다 10위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미국시장의 수요확대에 따른 수출증가로 순위가 1단계 상승했으며, 스페인은 내수와 수출확대로 12위에서 9위로 올랐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중국과 미국시장의 판매증가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9010만대를 기록했다.

원성열 기자

## 지난해 관광수입 19조9100억원 ‘역대 최대’

큰 손 관광객 증가...전년 대비 24.4% ↑

외래 관광객 140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 국내 관광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입은 181억 달러(약 19조9100억원)로 2013년 145억 달러보다 24.4%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지출액도 1272달러(139만9200원)로 전년도에 비해 79달러 늘었다.

관광수입이 증가한 것은 1인당 지출 규모가 큰 중국인 관광객(613만명)이 늘었고, 이와 함께 중국인 못지않게 1인당 지출규모가 큰 러시

아, 중동, 싱가포르 등 ‘큰 손 관광객’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420만명을 기록한 외래 방문객들은 국내 전 산업에 걸쳐 약 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취업유발 인원도 57만6000명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 관광객은 생산유발액 18조 6000억원, 취업유발 34만 명으로 추정했다.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33조원은 휴대품 수출 3900만대, 현대 소나타 승용차 수출 49만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외래객 목표를 1550만 명으로, 관광수입 목표는 10.2% 늘어난 200억 달러로 정했다.

김재범 전문가

## 설 연휴엔 대명리조트서 놀자

민속놀이·연날리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대명리조트는 전국 8개 사업장에서 민속놀이 체험, 연날리기, 가훈씨주머니, 송편나눔, 복주머니 북북북, 가족노래자랑, 딱지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명리조트 변산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가훈, 덕담 씨주머니를 진행한다. 리조트 로비에서 무료로 가훈 등을 씨주머니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소노펠리체는 설날인 19일 딱지왕 선발대회와 가족노래자랑을 진행한다. 딱지왕 선발대회는 오후 5시 노블리안동에서 열리며 선착순 8팀이 참가할 수 있다. 가족노래자랑은 디아만때 홀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10팀이다.

대명리조트 제주는 로비에서 고객들에게 복주머니를 선물한다. 복주머니에는 식음료 무료



대명리조트 멜피호 호텔&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윷놀이. 사진제공 | 대명리조트

권 및 할인권이 들어있다. 18일부터 20일까지 A동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 대명리조트 양평, 거제, 멜피호 호텔 &리조트, 엠블호텔 여수 등에서도 연휴기간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던지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존을 운영한다. 김재범 전문가

## ‘한일우호교류행사’ 日 1400여명 한국 방문

1400여명의 일본 정관계 인사 및 관광객 관계자로 구성된 대규모 일본인 방한단이 ‘한일우호교류행사’를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찾았다. 14일은 한일 관광업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가 모여 ‘여행업 상담회’와 ‘관광교류 확대회의’가 열리고, 양국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일우호교류의 밤’도 펼쳐진다. 아시아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400여명

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에는 답방 형식으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500명 규모의 교류단을 구성해 일본 동북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일우호교류행사’는 2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자민당 의원인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전국여행업협회장이 올해 ‘한일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행사’를 한국에서 열기로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편집 | 김재범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